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정치적·경제적 영향과 전망

강문수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부연구위원 (kangms@kiep.go.kr, 044-414-1204)

이지은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jnlee22@kiep.go.kr, 044-414-1096)



차 례

1. 이스라엘-이란 충돌 경과 및 배경
2. 이스라엘에 미칠 정치적·경제적 영향
3. 전망

주요 내용

- ▶ 2024년 4월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 300개 이상의 드론 및 탄도·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재반격으로 19일 이란 중부에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됨.
 - 이란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상대국 본토를 공격했지만 양측의 공격 시기와 정도가 세심하게 조정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목적은 실질적 위협이 아닌 경고 메시지 전달에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됨.
- ▶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 국내 정치와 대외 관계에 전환점으로 작용해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외교적 고립 탈피 등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스라엘 경제는 국방비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란과의 직접적인 충돌 및 역내 확산 가능성 감소로 네타냐후 총리의 대내외적 지지도가 상승할 전망이며, 조기 총선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이스라엘이 강조하던 '이란발(發) 안보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진바, 이스라엘은 그간 가자지구 상황으로 치해 있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2024년에도 2023년과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스라엘 GDP의 18%를 차지하는 첨단기술 산업은 2024년 1/4분기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 이스라엘과 이란이 기존의 불문율을 깨고 직접 타격을 주고받으면서 양국간 전면전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역내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미 대선 시기인 금년 11월까지 지는 양국이 산발적 형태의 충돌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이스라엘은 전선 확대에 따른 방위 부담 가중, 이란은 정권에 대한 불만 고조 및 확산 시 동맹국의 전폭적 지지 확보의 어려움,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증가하는 외교적 부담 등의 요인으로 확산을 원하지 않고 있음.
 - 이란은 역내 이란 우호세력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교전을 지속하고, 이스라엘은 인접국 내 이란 자산을 타격하는 수준에서 양국간 갈등이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임.
- ▶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한-이스라엘 경제협력에는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공화당 집권 시 미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전폭적 지지와 함께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를 통해 이란 압박 수위를 강화하겠으나, 민주당 집권 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재, 이스라엘-이란 충돌 방지 등 중동 내 긴장 완화가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을 것임.
 -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에 따른 한-이스라엘 경제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대이스라엘 장비 수입 규모가 연간 5억 달러(2021년 기준)에 달해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1. 이스라엘-이란 충돌 경과 및 배경

■ 2024년 4월 13일 토요일 밤, 이란은 '진실한 약속 작전(Operation True Promise)'을 단행해 이스라엘 남부 네바티م(Nevatim) 공군기지와 헤르몬산(Mount Hermon) 군사시설을 향해 드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함.

- 현지 시각 오후 11시경 이스라엘 방위군(IDF: Israel Defense Forces)은 이란의 공격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약 5시간 동안 이어 공격에 대해 아이언돔을 포함한 다층 대공방어 시스템과 군용기 등을 활용하여 300개 이상의 이란 발사체 중 99%를 요격함.¹⁾
 - 특히 해당 방어에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이 이란의 발사체를 이스라엘 국경 바깥에서 직접 요격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짐.
 - 이란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 중 최소 다섯 발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망을 뚫었으며, 그중 네 발이 네바티م 공군기지에 명중했으나 기반 시설에 경미한 피해를 주는 데 그쳤음.²⁾
 - 이란의 공습과 동시에 레바논 헤즈볼라는 골란고원에 주둔한 IDF 기지를,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항구를 타깃으로 공격을 감행했으나, 이로 인해 보고된 피해는 없었음.
-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6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공격에 대하여 이란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대사관 부지 내 영사관 건물을 폭격해 이란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쿠드스군 고위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Mohammad Reza Zahedi)를 포함한 두 명의 장군과 다섯 명의 장교가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밝힘.
 - 이란 유엔대표부는 동 공격이 '외교 및 영사 시설의 불가침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반했으며, 이란이 이에 단호히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밝힘.³⁾

■ 이란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6일 후인 4월 19일 새벽 나탄즈(Natanz) 우라늄 농축 플랜트와 이스파한 핵기술센터를 포함한 핵시설, 미사일 생산단지, 공군기지 등이 위치한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Isfahan)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함.

- 이란 언론은 현지 시각 새벽 4시경 이스파한 공항과 육군·공군 기지가 있는 카자바리스탄(Qahjavaristan) 시에서 방공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초소형 항공기(micro air vehicle) 세 대를 격추하면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함.⁴⁾
 - 이란 측은 이스파한 핵·군사 관련 시설이 어떠한 타격도 입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 일부 언론은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우회하여 이스파한 공군기지의 방공 시스템을 훼손했다는 소식을 보도함.⁵⁾

1) 170여 대의 드론, 30여 기의 순항 미사일, 120여 기의 탄도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알려짐. "April 14, 2024 - Iran's attack on Israel"(2024. 4. 15.), CNN. "Israel's multilayered air-defense system protected it from Iran's drone and missile strike"(2024. 4. 14.), AP News. "US, UK and Jordan intercept many of the Iranian drones headed to Israel"(2024. 4. 14.), The Times of Israe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4. 16.).

2) "What Iran launched at Israel in its unprecedented attack, and what made it through the air defenses"(2024. 4. 16.), CBS News(검색일: 2024. 4. 16.).

3) "Iran vows revenge on Israel after Damascus embassy attack"(2024. 4. 3.), Reuters(검색일: 2024. 4. 16.).

4) "Iran destroys several micro air vehicles over Isfahan"(2024. 4. 19.), Mehr News Agency(검색일: 2024. 4. 20.).

-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관여한 바 없으나 18일 오전 이스라엘로부터 향후 24~48시간 내 이란에 보복할 계획임을 사전 통보받았다고 밝힘.

■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림자 전쟁(shadow war)을 넘어 처음으로 상대국의 본토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양국 긴장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할 수 있으나, 양측의 공격 시기와 정도가 세심하게 조정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목적은 실질적 위협이 아닌 경고 메시지 전달에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됨.⁶⁾

- 이란은 확전 및 전면전이 촉발되지 않도록 공격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제한된 종류와 숫자의 드론과 미사일을 활용하여 이스라엘 측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군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 작전을 설계한 것으로 분석됨.⁷⁾
 - 미 백악관은 부인했으나,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무장관은 공격 72시간 전에 미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에 미리 고지했다고 밝힘.
 - 또한 13일 오후 1시경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나포하며 긴장 수위를 먼저 끌어올렸으며, 13일 밤 이스라엘 영공 진입에 4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드론을 활용한 공세를 시작한 뒤 이에 대해 발표하면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이스라엘에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음.
 - 이를 통해 이란은 이스라엘에 확실히 주의를 쏘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국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만 고조를 일정 정도 잠재우고,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적극 대응하지 않은 역내 아랍 정권들을 향해 이란의 군사적·도덕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효과를 얻음.⁸⁾
- 이스라엘 역시 이란 내 핵시설에 대한 상당한 정보와 이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도 미사일이나 공습이 아닌 드론을 활용하여 이란 측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제한적 수준의 보복을 단행함.
 -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 공격 여부 및 의도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 배후로 특정하고 재반격하지 않을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제공함.
 - 실제로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이스라엘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⁹⁾

5) "Israel Iran attack: Damage seen at air base in Isfahan"(2024. 4. 21.), *BBC*(검색일: 2024. 4. 21.).

6) '그림자 전쟁'이란 정규군 동원을 통한 공개적이고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대리 세력, 드론,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전쟁을 지칭함. "Iran's reprisal against Israel: A failed attack or a veiled warning?"(2024. 4. 15.), *France 24*(검색일: 2024. 4. 17.).

7) "Iran's attack seemed planned to minimize casualties while maximizing spectacle"(2024. 4. 14.), *CNN*; "Iran's Attack Seems Like It Was Designed to Fail. So What Comes Next?"(2024. 4. 14.), *Politico*(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4. 17.).

8) "Iran's Strike on Israel Creates Military Uncertainty, Diplomatic Opportunity"(2024. 4. 18.), *The New York Times*(검색일: 2024. 4. 19.).

9) "Iranian foreign minister says it will not escalate conflict and mocks Israeli weapons as 'toys that our children play with'"(2024. 4. 20.), *NBC News*(검색일: 2024. 4. 21.).

2. 이스라엘에 미칠 정치적·경제적 영향

■ [국내 정치] 이란의 공격이 정치적 전환점이 되어 네타냐후 리더십에 가해지는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보임.

- 이스라엘 측의 절제된 대응으로 이란과의 직접적인 충돌 및 역내 확산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이는 네타냐후 총리의 대내외적 지지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현지 신문 Maariv가 4월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7%의 응답자가 ‘총리로 적합한 인물’로 네타냐후 총리를 꼽았으며, 그의 정적인 야권 국가통합당 대표 베니 간츠(Benny Gantz)와의 차이가 단 5%p로 좁혀짐.¹⁰⁾
 - 이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는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 우려로 연기되었던 라파 지상작전은 물론이고 헤즈볼라, 시리아·이라크 내 친이란 우호세력에 대한 공격도 큰 반대 없이 감행할 것으로 예상됨.
- 이스라엘 의회가 2023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총리의 정신적 문제 혹은 건강상 이유에 의해서만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의회가 탄핵이 아닌 방법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① 건설적 불신임(constructive no-confidence motion) 투표를 통해 의회 구성원 120명 중 61명 이상이 지지하는 후임 총리를 먼저 선출하거나, ② 현재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64명의 의원 중 5명 이상이 연정을 이탈해 의회가 해산되고 3개월 내 조기 총선이 실시되는 것인데, 두 경우 모두 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¹¹⁾
- 그러나 퇴임 및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야권 및 국내 여론과 연정 지지 철회를 시사하는 극우 세력의 압력은 여전하므로 향후 네타냐후 총리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지 못할 시 현 연립정부가 해산되고 총선을 다시 치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야권 국가통합당 대표 베니 간츠(Benny Gantz)는 2024년 9월에 조기 총선을 치를 것을 주장했으며,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와 베잘릴 스모트리히(Bezalel Smotrich) 등 일부 극우 의원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 공세 중지, 하마스와의 죄수 교환 협상,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초정통파 유대인에 대한 보조금 중단 등을 추진할 경우 연립정부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¹²⁾

■ [대외 관계] 이스라엘이 강조하던 이란발(發) 안보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진바, 이스라엘은 그간 가자지구 상황으로 처해 있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대이란 재반격 자제 촉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축소된 수준으로 대응함으로써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이란의 공격성을 강조하여 자국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냄.

10) “סקר מעריב | פרוץ המלחמה: הליכוד בשיא מאז פרוץ המלחמה,” *Maariv*(검색일: 2024. 4. 20.).

11) “Deposing Israel’s king”(2024. 3. 17.), *The Economist*(검색일: 2024. 4. 20.).

12) “Benny Gantz calls for early elections in Israel”(2024. 4. 4.), *Financial Times*; “Government will fall without Rafah operation, Ben-Gvir threatens”(2024. 4. 8.), *The Jerusalem Post*; “Israel: Far-right ministers threaten to withdraw from government”(2024. 3. 19.), *Middle East Monitor*; “Iran has just strengthened Netanyahu’s hand,” *Politico*(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4. 19.).

- 4월 1일 IDF의 오폭으로 가자지구에 식량을 전달하던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orld Central Kitchen) 직원 7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서방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측에 전쟁 종식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습을 기점으로 이란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기조를 선회함.
-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포함하여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역내 이란 우호 세력과의 군사적 충돌을 '이란이라는 적대적 군사 강국에 맞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주장할 수 있게 됨.¹³⁾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기간 드러난 미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의 이견 및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으나, 이란과의 충돌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미국의 지지를 확인받음.
- 또한 이번 사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이란의 위협을 체감하는 역내 국가들과 오히려 협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여, 향후 반(反)이란 역내 전략동맹 또는 지역연합 구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임.

■ [경제] 이스라엘은 국방비 지출 증가로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었으나, 강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올해 이스라엘 경제가 회복탄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됨.

- 이스라엘은 2023년 4/4분기에 이전 분기 대비 -21.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재정적자는 7배 이상 증가해 GDP 대비 -2.2%에서 -15.6%로 확대됨.¹⁴⁾
- 3/4분기 대비 민간 지출은 26.9%, 고정자산 투자는 67.9% 감소한 반면 정부 지출은 83.7% 증가함.
- 재정 부담 가중에도 이스라엘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개정하여 기존보다 약 186억 달러 증액했는데, 이 중 약 146억 달러를 국방 예산에 할당하여 전쟁을 위한 정부 지출을 확대하기로 결정함.¹⁵⁾
- IMF는 2024년 이스라엘의 GDP 대비 순공공부채가 2023년 대비 5.5%p 증가한 6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¹⁶⁾
- 4월 18일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은 국방비 지출 증가에 따라 2024년 이스라엘 GDP 대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각각 8%, 6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역내 지정학적 위험 증가를 고려하여 이스라엘의 장기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함.¹⁷⁾
- 14일 새벽 이스라엘이 대공방어 비용으로 IDF 2023년 순예산의 6.7~8.3%에 달하는 약 11억~14억 달러를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또 한 번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¹⁸⁾

13) "Iran has just strengthened Netanyahu's hand"(2024. 4. 14.), *Politico*(검색일: 2024. 4. 19.).

14) "Israel Q4 GDP revised to 21% contraction as a result of Gaza war"(2024. 4. 16.), *Middle East Monitor*, 이스라엘 중앙통계국 자료 재인용; Israel Ministry of Finance, "Estimated Execution of the State Budget - December 2023"; EIU Viewpoint Da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4. 22.).

15) 이스라엘 중앙은행 보도자료(2024. 4. 8.), "Research Department Staff Forecast, April 2024"(검색일: 2024. 4. 20.).

16)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4"(검색일: 2024. 4. 22.).

17) "Israel Long-Term Ratings Lowered To 'A+' From 'AA-' On Heightened Geopolitical Risk; Outlook Negative"(2024. 4. 18.), S&P Global(검색일: 2024. 4. 20.).

18) "The staggering cost of Israel's defense against Iran's missile attack: '4-5 billion shekels per night'"(2024. 4. 14.), *Ynet News*(검색일: 2024. 4. 20.).

-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2023년 4/4분기의 경제 위축에도 2024년에는 이스라엘의 민간 소비와 노동력 공급 감소가 점차 회복되면서 2023년과 동일하게 2.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 특히 인력 공백, 외국인투자 감소, R&D 활동 감소 등 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GDP의 18.1%를 차지해 이스라엘 경제의 토대가 되는 첨단기술 산업은 2024년 1/4분기에 성장세를 보임.
 - 민간 투자액은 2023년 4/4분기 대비 9% 증가한 1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M&A 규모도 2022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액수인 20억 달러로 집계됨.¹⁹⁾
 - 이러한 성장세는 4월 21일 이스라엘 정부가 기관들의 벤처캐피털 펀드에 대한 첨단기술 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해 요즈마 펀드 2.0(Yozma Fund 2.0) 프로젝트를 개시하기로 한 결정에 힘입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²⁰⁾

3. 전망

가. 이스라엘-이란 간 중강도 분쟁 지속

- 이스라엘과 이란이 기존의 불문율을 깨고 직접 타격을 주고 받으면서 양국간 전면전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역내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미 대선 시기인 금년 11월까지의 양국이 산발적 형태의 충돌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이스라엘은 친이란 세력과의 전선 확대에 따른 방위비 부담 가중, 확전에 따른 역내 고립 등의 요인으로 확전을 원치 않음.²¹⁾
 - 이란 및 역내 이란 우호세력과의 전면전은 방어체계 운용에 따른 방위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미국이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국방비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임.
 - 이스라엘은 2020년 아브라함협정 체결,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추진 등 아랍-이스라엘 관계 개선을 통한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어, 이번 충돌이 역내로 확산될 경우 중동 지역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음.
- 이란 역시 경기침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 고조, 확전 시 주요 동맹국의 지원 보장 부재 등 다양한 불안 요소로 인해 확전을 피하기 원함.
 - 이란은 미국과 UN의 경제제재 이후 해외자금 동결, 국제 결제 시스템 이용 제약, 석유 수출 금지 등으로 인해 1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확전 후 경제제재 강도가 높아질 경우 경제적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²²⁾
 - 이란 내에서는 산적한 국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지 않고 해외 군사작전에 몰두하며 지역 평화를 해치는 지도층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어,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을 감행할 경우 국내 여론이 더욱

19) Startup Nation Central(2024. 4. 15.), "Q1 2024 Report: Israeli Tech Ecosystem"(검색일: 2024. 4. 21.).

20) "Israel launches fund to entice institutional investment in tech firms"(2024. 4. 21.), Reuters(검색일: 2024. 4. 22.).

21) "No one wants to escalate things"(2024. 4. 19.), Politico(검색일: 2024. 2. 20.).

22) "US sanctions inflicted \$1 trillion damage on Iran's economy: FM"(2021. 2. 21.), Al Jazeera(검색일: 2024. 4. 20.); "How much would Iran gain financially from returning to the JCPOA?"(2022. 3. 16.),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검색일: 2024. 4. 20.).

악화될 것임.²³⁾

- 또한 러시아와 중국 역시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이 발생하더라도 주요 동맹국의 전폭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²⁴⁾
-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또 다른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에 외교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재반격할 시 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스라엘 측에 전달함.²⁵⁾
- 이스라엘-이란 충돌이 확대되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 역내 주둔 미군 피해 발생, 이스라엘 지원에 따른 미국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이란 수교 중재 등 중국의 중동 내 영향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 간 확전은 역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²⁶⁾

■ 이란은 역내 이란 우호세력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교전을 지속하고 이스라엘은 인접국 내 이란 자산을 타격하는 수준에서 양국간 갈등이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임.

- 이란은 기존의 전략을 도입하여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를 통해 이스라엘이나 역내 주둔 중인 미군을 공격할 확률이 높음.
- 특히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운항선박 공격이 국제 물류 경색 및 유가 상승을 초래해 세계경제가 타격을 받은 것을 목격한 이란이 이전에 내세운 경고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봉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²⁷⁾
- 이스라엘 역시 이전 사례와 비슷하게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지의 친이란 세력 군사기지 등을 타격함으로써 이란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 양국간 물리적 갈등은 잦아드는 한편 악성코드나 랜섬웨어의 형태로 정부, 금융기관, 군대, 학계, 미디어 등 국가 주요 정보 시스템을 중단 및 파괴시키는 사이버 공격이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²⁸⁾

나. 대선 이후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변화 가능성

■ 이스라엘-이란 간 중강도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대이스라엘 협력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공화당 집권 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될 경우, 이스라엘을 향한 전폭적 지지와 함께 대이란 경제제재

23) "Iranians Criticize Quds Day's Futility And Destructive Impact"(2024. 4. 5.), *Iran International*(검색일: 2024. 4. 22.).

24) "Russia's Putin urges restraint in call with Iran's Raisi as tensions soar"(2024. 4. 16.), *Al Jazeera*(검색일: 2024. 4. 20.).

25) "Biden administration tightlipped on Israel strike as US looks to maintain distance from decision"(2024. 4. 19.), *CNN*(검색일: 2024. 4. 20.).

26) "How much leverage does China really have over Iran?"(2024. 4. 19.), *Foreign Policy*(검색일: 2024. 4. 20.).

27) "IRGC naval chief threatens to close key strait, vows response to Syria strike coming"(2024. 4. 9.), *The Times of Israel*(검색일: 2024. 4. 20.).

28) "World braces for Iran-Israel cyberattacks following missile attack"(2024. 4. 16.), *Axios*(검색일: 2024. 4. 22.).

강화를 통해 이란 압박 수위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하원은 공화당 마이크 존슨 의원의 주도하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에 대한 지원 규모를 증액하는 「해외 원조법(Foreign aid bill)」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26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확대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에서 검토하는 중임.²⁹⁾
 -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미국은 2020년 아브라함협정에 이어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란 핵시설 제거를 위한 미-이스라엘 간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재임 시절을 미루어 볼 때, 대이란 경제제재가 강화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이란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 역시 존재함.³⁰⁾
 - 한편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재임 시절 미 대사관의 동예루살렘 이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대팔레스타인 정책 역시 더욱 강경해질 수 있음.
- [민주당 집권 시]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대중동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란 핵 합의 등의 의제에 대한 그의 외교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임.
-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중재 및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기존의 갈등 요소들을 제거하고 역내 긴장을 완화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³¹⁾
 - 또한 중동 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외교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 이란 핵 합의 복원 공약을 내세운 것에 비해 임기 내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유의미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차기 임기에 이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 귀추가 주목됨.

다. 향후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 가능성

-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에 따른 한-이스라엘 경제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대이스라엘 장비 수입 규모가 연간 5억 달러(2021년 기준)에 달해 확전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이스라엘 FTA는 2019년 타결 이후 2022년 12월 공식 발효되었으며, 이는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사례이자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사례이기도 함.
- 한-이스라엘 양국은 FTA를 통해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7%에 이르는 자동차 기준세율이 철폐됨.³²⁾

29) "US House pushes ahead with \$95bn foreign aid package for Ukraine, Israel and Taiwan"(2024. 4. 19.), *The Guardian* (검색일: 2024. 4. 20.).

30) "Biden vs Trump: Key policy implications of either presidency"(2023. 12. 21.), EIU; "Biden vs Trump: key policy implications of either presidency"(2023. 12. 21.), *EIU*(검색일: 2024. 4. 18.).

31) "President Biden's Middle East Policy"(2021. 4.), *Fathom Journal*(검색일: 2024. 4. 20.).

32) 한국무역협회(2022), 「한-이스라엘 FTA 체결 효과」, 『통상이슈브리프』, pp. 4~5.

- 한국의 대이스라엘 수출은 자동차(51%), 합성수지(7.4%), 석유제품(3.6%), 기타 정밀화학제품(2.7%) 순이며, 수입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31.3%),³³⁾ 전자응용기기(13.2%), 측정제어분석기(9.2%), 무선통신기기(6.1%) 순임.
- 우리나라의 대이스라엘 반도체 제조용 장비(MTI 6단위 기준 732100) 수입 규모는 약 14억 5천만 달러(2023년) 수준으로 네덜란드, 일본,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그쳐 이스라엘 내 전황이 악화되더라도 한국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³⁴⁾
- 한국은 이스라엘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전자응용기기 등에 적용되는 관세를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란 긴장 관계가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³⁵⁾

■ 한-이스라엘은 FTA를 통해 첨단기술³⁶⁾ 분야 기술협력 촉진에 합의했으며, 이스라엘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모색하는 등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시점에서는 협력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스라엘이 국방비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이스라엘 간 경험의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한-이스라엘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하고, 공동연구 및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FTA를 통해 첨단기술 협력에 합의함.
 - 한-이스라엘 FTA 체결에 따라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최대 체류기간 연장 부담 완화,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협력 확대 등이 가능해졌으며, 이스라엘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됨.³⁷⁾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2년 한-이스라엘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했으며, 이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한국의 중견기업과 이스라엘 스타트업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음.³⁸⁾
 - 또한 양국은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협정 체결,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 혁신청 간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 조성을 통한 로봇, 지능형 이동수단, 라이트 하우스 프로그램(로봇 분야 공동연구개발) 등 중점 연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함.³⁹⁾
- 다만 한-이스라엘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내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이스라엘 FTA와 산업통상자원부-이스라엘 혁신청 협력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KIEP**

33) 측정용 및 검사용 기기(HS코드 9031), 광학 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HS코드 9012), 물리나 화학분석용 기기(HS 코드 9027), 전자집적회로(HS코드 8542) 등이 대표적 수입물품임.

34) KITA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24. 4. 22.).

35) 한국무역협회(2022), 「한-이스라엘 FTA 체결 효과」, 『통상이슈브리프』, p. 9.

36) 항공우주, 의약품,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가상현실, 빅데이터, 재생가능에너지,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 농업·식량, 인공지능, 보건의료.

37)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2019. 8. 2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38) 「한-이스라엘 기술협력센터 출범(2022. 1. 10.)」, 한국중견기업연합회(검색일: 2024. 4. 23.).

39)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연다(2021. 7. 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검색일: 2024. 4. 23.); 「한-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기술협력 본격 착수(2023. 3. 2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검색일: 2024. 4. 23.); 「한-이스라엘, 첨단기술 분야 공동연구개발(R&D) 본격화(2023. 6. 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검색일: 2024. 4. 23.).